

허위·과다 입원자 감시...미수범도 처벌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범죄 뿌리뽑자

근절 대책은

오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일반사기로 취급돼 죄질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원천 차단 및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보험사기는 형법을 적용,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던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이보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우선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금액이 50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보험사기로 취급한 이득

30일부터 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벌금 5천만원·신고포상금 10억원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거래 제한

만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고포상금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브로커 조직을 통해 조직화·은밀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 또는 정비업체의 '짤짜미'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사상금도 최고 50%에서 100%로 올렸다. 포상금 지급기준도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의 20%만 인정해 산출하던 과거 기준을 폐지하고,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으로 인정하게 했다.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인터넷 신고시에 본인 인증을 위해 아이폰을 사용했지만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사용도 가능해졌다. 신고자가 전화로 신고할때 대기가 길어지면 담당자가 추후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체 보험가입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허위·과다 입원경력자 등을 고위험군 가입자로 분류해 밀착 감시한다. 또 보험사기인공지능시스템(IFA)에 축적된 보험 계약·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분석, 효율적으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범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를 할 때 해당 사실이 조회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전에 은밀하게 계획되는 만큼 완벽하게 예방하기 쉽지 않지만, 보험사 시스템과 현행법 등을 개선해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사기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절도나 강도는 큰 죄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기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광주 호수공원 도시농업박람회 24일 광주시 서구 광암호수공원에서 '덧발정원, 치유와 예술을 더하다'는 주제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호박을 둘러보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광주시가 주최한 도시농업박람회는 26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행복추구권 침해" 2심도 인정

강제로 정관·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개인권리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23일 A씨 등 139명의 한센인이 낸 국가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남녀 피해자들에게 동등하게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단종(斷種·정관수술) 피해자인 남성에게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인 여성에게 400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단종·낙태 수술을 한 것은 근거 법령이 없이 이뤄진 일"이라며 "한센인의 인격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각기 받았을 정신적 고통엔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녀 모두 20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1심은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신체 침해 정도를 더 심하게 보고 위자료에 차이를 뒀다.

재판부는 사법 사상 처음으로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을 열어 한센인의 피해 증언을 듣고 현장 검증도 진행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오늘 판결은 사회의 소수자이고 약자인 한센인들을 국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따뜻한 위로와 배려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면서 "2심에서 장기간 심리를 해 국가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정하고도 1심보다 훨씬 적은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지극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단종·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500여명은 국가가 수술을 강제로 시켰다며 2011년부터 5차례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정부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1건이 계류 중이고, 이날 선고 사건을 포함해 서울고법에 4건이 있다. 사망한 한센인의 상속인이 낸 소송 1건도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연합뉴스

가건물 지으려 고향 산림 훼손한 전직 면장

장성 북이면에 불법 임도 개설...郡, 원상회복 요청·공사 중지 명령

전남도 간부공무원이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 마구잡이로 진입 도로를 내면서 지역민들의 등산로를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장성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전남도 5급 공무원인 A씨는 북이면 백암리 산 12-2번지 본인 소유 임야(2150평)에 가설건축물(80여평) 설립신고를 해놓고 건축물은 정작 신고하지 않은 인근 땅에 조성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신고한 지반과 다른 부지지만 해당 토지 소유주의 가계약 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갔고 형질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도 받지 않은 채 산지 진입도로 및 배수로 공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북이면장 출신의 A씨가 관련 절차를 무시한 마구잡이 공사를 하면서 인근 등산로까지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성군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원상회복 요청 및 공사중지를 명령했으며 정확한 실태 조사 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와관련, "정년퇴임 뒤 메뚜기유충 배양을 위한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면서 "조사를 거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기자 yongho@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3 해질 18:24 달돋이 06:25 달질 18:26

일교차 커요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리고 가끔 비	20/27	보성	흐리고 가끔 비	18/26
목포	흐리고 가끔 비	20/26	순천	흐리고 가끔 비	21/28
여수	흐리고 가끔 비	22/26	영광	흐리고 가끔 비	19/26
나주	흐리고 가끔 비	18/28	진도	흐리고 가끔 비	19/26
완도	흐리고 가끔 비	21/26	전주	흐림	19/25
구례	흐리고 가끔 비	18/27	군산	흐림	19/25
강진	흐리고 가끔 비	20/27	남원	흐림	19/25
해남	흐리고 가끔 비	19/27	홍산도	흐리고 가끔 비	19/23
장성	흐리고 가끔 비	18/26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북동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5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5~2.5
	면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보통
-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27(화)	☁	28(수)	☁	29(목)	☁	30(금)	☁
10/1(토)	☁	10/2(일)	☁	10/3(월)	☁		
22/29	20/24	19/25	17/25	16/25	15/25	15/25	

산인들

농민후계자가 직접 재배한 월빙자미잡곡

농민후계자가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국내산 100% 자미잡곡세트로 건강을 선물해보세요!!

고급잡곡5종세트 고급잡곡4종세트

자미잡곡 월빙바람을 타고 잡곡이 "건강지킴이"로 뜨고 있다.

자미농민후계자영농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156-3번지
Tel. (062)514-2902 H.010-8600-4525